

현시기 자본주의재정위기의 격화와 그 원인

김 두 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제국주의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있으며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12권 증보판 54페이지)

오늘 자본주의는 헤어날수 없는 심각한 위기속에 처하여있다. 자본주의위기는 사회경제생활전반을 포괄하는 전면적이면서도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국적인것으로서 재정위기는 그 대표적인것의 하나이다.

재정위기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반인민성과 부패성으로 하여 발생하는 국가재정의 심각한 혼란상태로서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재정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지 못하여 적자가 생기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로 이행하고 독점자본주의가 수립되면서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이 심화되어 자본주의경제위기, 재정위기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오늘 미국의 국가재정위기는 현대제국주의의 경제위기, 재정위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는 1979년에 400억US\$의 예산적자를 낸 이후 해마다 막대한 예산적자를 기록해왔다. 특히 2009 회계년도에 미련방예산적자는 1조 4 200억 US\$로서 제2차 세계대전후 처음으로 되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2009년 11월 국가채무가 12조 310억US\$에 달하였다.

예산적자와 국가채무의 증대 등 국가재정위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본주의나라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최근 유럽지역 나라들에서도 심각한 재정위기, 채무위기를 겪고있는 가운데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뽀르투갈, 에스빠냐 등 4개 나라의 채무위기가 심각해져 유럽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나라들의 국가채무는 2008~2010년에 국내총생산액에 비하여 8.6~33.1%로 증가하여 2005~2007년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다.

오늘 자본주의국가재정위기는 재정예산제도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세제도가 전면적인 위기상태에 빠져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예산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되자면 무엇보다도 지출을 보장할수 있는 수입이 마련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수입의 압도적인 몫을 차지하는 조세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조세제도는 운영상 혼란과 모순에 처하여있으며 도저히 헤어날수 없는 위기의 구렁텅이속으로 빠져들고있다.

자본주의조세제도의 전면적위기는 우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조세제도운영을 위한 명백한 대책이 없이 좌왕우왕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19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독점들에게 조세특혜를 제공하는 감세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감세정책은 그들이 의도한대로 경제의 회복이나 세금증대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국가예산적자가 더욱 늘어났다. 그리하여 2009년 미국에서는 예산적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9개 주가 소득세를 인상하였으며 일부 주들에서는 부동산세나 기호품세를 올리는 최후의 선택을 하였다. 특히 최근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있는 그리스, 뽀르투갈, 에스빠냐, 이탈리아 등의 나라들도 그것을 어떻게하나 저지시켜

보려고 긴축정책의 하나로서 세금인상정책을 강행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감세정책이 결코 만능의 처방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자본주의조세제도의 전면적위기는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세금부담능력이 계속 떨어지는데서 표현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본납세자는 근로대중이지만 심화되고있는 자본주의경제위기와 략탈적인 경제정책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세금부담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있다.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분화가 더욱 우심해져 세금원천이 고갈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위기는 필수적으로 실업위기를 몰아온다. 지금 금융위기, 채무위기 등을 겪고있는 서방나라들에는 거대한 실업대군이 형성되어있다. 주목되는것은 자본주의경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시기에도 실업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폭발하여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로 하여 미국에서의 실업률은 2008년에 5.8%로서 2003년이후 가장 높았고 2011년 2월에 유럽동맹국들의 실업자수는 2 305만 1 000명, 일본에서는 347만명으로서 역사상 최고의 실업위기가 발생하였다. 실업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빈궁자수의 증대로 이어진다.

한편 미국과 그리스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세금을 올리는것과 함께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로 하였는데 그 지출축감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년금 및 임금삭감과 상금지불의 폐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자의 증대, 인플레이의 격화, 임금삭감 등은 빈궁선이하에

서 쪼들리는 근로인민대중의 실질소득을 더욱 떨어뜨리고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주요 납세자로 되어있는 근로대중의 세금부담능력을 떨어뜨려 자본주의재정위기를 더는 극복할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고있다.

자본주의조세제도의 전면적위기는 또한 반인민적인 가렴잡세제도가 성행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비법적인 가렴잡세를 조작하여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고있다. 지어는 악착하기 그지없는 봉건적조세를 받아내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새로운 세금들을 수많이 조작하는것과 함께 지방정부들도 제가끔 세금을 만들어내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에서 주당국들은 예산적자를 메꾸기 위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별의별 방법과 대책들을 다 고안해내고있는데 일부 주들에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피이한 세종들까지 만들어 세금수탈에 리용하고있다. 2009년초 미국 뉴욕주에서는 주내주민들에게 88가지 항목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것을 예견한 2009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휴대용음악재생기소유자, 택시임대, 체육시설 및 오락장입장권, 유선 TV, 위성TV에 접속하려는 사람 등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재정예산적자를 메꾼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세종들이 조작되다 못해 이제와서는 지난 기간 법으로 금지시켜오던 세종들까지 합법적인것으로 등장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이러한 말세기적인 피이한 풍조는 자본주의조세제도의 반인민성과 자본주의조세제도가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을 희

생시키는 가혹한 조세수탈은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근로대중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쳐 자본주의조세제도위기를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과중한 세금부담에 눌리워 죽음의 나락에 굴러떨어지게 된 자본주의나라 주민들은 정부의 반인민적인 조치를 반대하여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확대하고있다. 특히 2011년 10월 15일과 16일 세계각지에서 동시에 벌어진 근로인민대중의 반자본주의투쟁은 자본주의의 300여년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대규모의 조직적전출이다. 80여개 나라 1 500여개 도시에서 수백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일제히 투쟁에 일떠섰다.

자본주의세계는 수백년이래 처음으로 밀뿌리채 뒤흔들리고있으며 자본주의나라들의 지배층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이와 같은 심각한 재정위기는 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위기가 격화되게 된 원인은 우선 날로 심화되는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에 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은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며 팽창된 대군수독점체들에게 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경제를 더욱 군사화하고 군사비지출을 대폭적으로 늘이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오늘 세계적인 군사비는 계속 늘어나 2007년에는 1조 3 390억US\$에 달하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크고작은 전쟁을 련이어 도발하면서 2010회계년도에만도 6 360억 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군사비로 탕진하여 재정에산적자를 가져왔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위기가 격화되게 된 원인은 또한 반인민적인 국가독점

자본주의정책실시와 관련한 예산지출이 팽창된데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산업투융자, 공공사업비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지출되는 국가예산자금들은 모두 독점자본가들에게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들수록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독점자본주의적간섭책동은 더욱 강화되고 그럴수록 예산자금탕진으로 인한 재정위기는 더욱 심각해진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정위기가 격화되게 된 원인은 또한 반인민적인 재정정책을 추구한데 있다.

부르쥬아국가는 대독점들과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감세정책을 실시하여 막대한 조세특혜를 제공하는 반면에 근로대중에 대하여서는 세금의 종류를 늘이고 세금을 계단식으로 끌어올려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부담을 들씌우고있다.

반인민적인 조세정책의 결과 조세수입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예산적자가 더 많아졌으며 부르쥬아국가는 모자라는 자금을 국채발행 등 새로운 빚을 내어 메꾸는 방법에 매여달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채무가 더욱 늘어나고 근로대중의 실질소득은 계속 떨어져 그들의 세금부담능력을 훨씬 저하시켰다.

이처럼 심각한 자본주의재정위기는 자본주의제도가 실시하고있는 반인민적인 경제정책, 재정금융정책, 조세정책이 가져온 필연적결과이다.

이 모든것은 자본주의제도가 존재하는 자본주의경제위기현상이 절대로 극복될수 없으며 자본주의재정위기,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자본주의제도의 멸망을 촉진시키게 될것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